

# 코로나 위기 속 임금협상 난항... 완성차업계 '척척산중'

한국지엠 노조, TC수당 500% 성과급 2200만원 요구 '눈살'

르노삼성 노사 신경전 치열 노조, 기본급 등 인상 요구



르노삼성자동차 조립공장.

국내 완성차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출 물량 감소와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올해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노사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이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노사간 치열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노사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안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생산량 감소로 역성장이 유력한 가운데 각 노동조합 집행부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노조 내부에서도 임금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시간당 859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1만770원으로 25.4%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동차 업계로 환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8일 제91차 임시대외대회 열고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기본급을 월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하고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수준의 성과급을 달라는 내용을 사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평균 2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부 조립라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TC수당을 500% 인상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했다. 한국지엠의 경우 2년 전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으며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1~5월) 판매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28% 급감한 상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르노삼성 노사는 임단협 상건례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노조의 기본급 인상 요구 예고에 이달 예정됐던 임금 및 단체협상 상건례가 7월로 연기됐다.

르노삼성 노조 집행부는 기본급 월 7만1687만원 인상, 라인수당, 직군 임금 체계 통합, 인원 충원을 통한 업무 강도 완화 등을 올해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기본급은 이미 2018년과 2019년 두 해나 동결됐기 때문에 올해는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르노삼성 부산 공장은 올해(1~5월) 5만2217대를 생산해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했다. 닛산 로그 유타 생산이 4월 종료되면서 하반기 실적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5월 생산량은 6577대로 2004년 9월 6210대 이후 가장 적었다. 사실상 최근 출시한 XM3 물량으로 올해를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XM3가 출시 후 내수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지만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부산 공장의 시간당 생산비용이 전 세계 그룹 공장 중 가장 비싸다는 점도 올해 임금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업계는 현대·기아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만형이자 전국급속노조의 핵심으로 매년 완성차업계의 임단협 방향성을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올해 투쟁 방향을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직원 생존권 보장'으로 설정했다. 전 세계 시장 회복이 요원한 상태에서 무리한 요구보다 일자리 보전을 중점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겹쳐 완성차업계 전체가 실적 악화를 겪을 것"이라며 "위기 돌파를 위해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임단협 상건례가 미뤄지면서 올해도 해를 넘기는 기업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LG전자, 유럽서 냉장고 특허전 '승소'

'도어 제빙' 기술 특허침해 소송

LG전자가 '도어 제빙' 특허 권리를 지켜냈다.

23일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LG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독자기술 '도어 제빙'에 대한 특허를 베코와 그룬디히가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처음 소를 제기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베코와



LG전자 도어 제빙 기술.

/LG전자

그룬디히가 독일에서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베코와 그룬디히가 판매하는 도어 제빙 기술 적용 제품은 모회사인 터키 아르첼릭이 생산한다. LG전자는 터키 아르첼릭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으며, 올 연말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LG전자는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 특허 4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도어 제빙 기술은 제빙기와 얼음 저장 통 등 관련 부품을 냉동실 도어에 배치해 냉동실 내부 공간을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김재용 기자 juk@

##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전격 사임

조현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대표이사(사진)가 23일 사임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이수일 단독 대표체제로 전환된다.

한국타이어는 이날 조현범, 이수일 각자 대표 체제에서 이수일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관련 업계는 조 전 대표가 2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으로 해석한다.

조 전 대표이사는 최근 협력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1심 판결과 관련한 항소장을 서울 중앙지법 형사1 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제출한 상태다. 조 대표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흥제 회장의 손자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대표이사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 효성화학, 친환경 '폴리케톤'으로 건설시장 공략

화재에 강하고 내구성 우수

효성화학이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케톤으로 지난해 수도계량기에 이어 이번엔 전력량계 소재로 건설시장 공략에 나섰다.

효성화학은 전력량계 소재로 폴리케톤을 처음 적용해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폴리케톤은 대기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CO)를 원료로 활용해 만드는 친환경·탄소저감형 고분자 소재로, 효성화학이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포케톤'은 효성화학의 폴리케톤 브랜드다. 기존 산업소재 대비 내충격성, 내화학성, 내마모성 등 물성이 우수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계측기기 제조업체 그린플로우와 함께 개발한 이번 제품은 기존 소재 대비 난연성이 우수해 화재에 강하고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두 배 이상 높



효성 폴리케톤 제품.

아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폴리케톤 소재로 전력량계를 1만개 대체할 경우,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를 약 1500kg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효성화학은 폴리케톤의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2016년 8월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녹색 기술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효성화학은 이번 제품을 공동 개발한 중소 고객사인 그린플로우의 판로 개척

도 지원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효성중공업이 시공하는 주요 건설현장에 폴리케톤이 적용된 전력량계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다수의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판로개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효성화학은 지난해 삼성계기공업과 함께 수도계량기를 개발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2만3000개를 납품한 바 있다. 폴리케톤을 적용한 수도계량기는 기존 제품 대비 동파에 2.4배 강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친환경·고강도 건축자재로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효성화학은 폴리케톤을 건축 자재뿐 아니라 식판, 골프티 등 일상 생활용품 및 레저용품으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효성화학은 지난해 9월부터 스타트업 기업인 EGS, GK상사와 함께 폴리케톤을 적용한 친환경 식판을 개발해 판매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 청사진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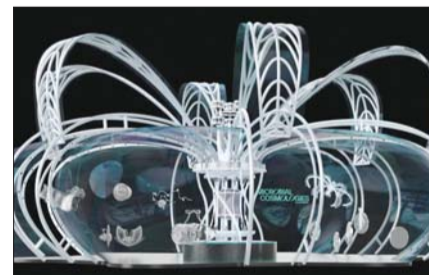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과 '자연' 주제로 공동연구 진행

현대자동차그룹과 세계적 디자인스쿨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RISD)이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 구현을 위한 디자인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가진 현대차그룹과 세계적 디자인 연구역량을 보유한 RISD가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전쇼(CES 2020)에서 인간 중심의 역동적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모빌리티 환승 거점(Hub)이라는 신개념 솔루션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오랜 시간동안 거대한 진보와 발전을 거듭한 '자연'에서 영감



현대차그룹-RISD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공동연구 '그래픽 디자인 연구팀'이 제안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모빌리티 허브' 디자인 프로젝트.

을 얻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디자인 연구를 위해 지난해 말 RISD 산하 '네이처랩'과 협업을 결정했다. 1937년 설립된 '네이처랩'은 자연 생명체와 생태계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RISD는 이번 현대차그룹과의 미래 모빌리티 공동연구를 위한 새로운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번 공동연구에는 총 108명의 학생이 연구 참여자로 지원했으며, 이 중 10개 전공 16명의 학생이 최종적으로 선발됐다. /양성운 기자